

# 대학 인성교육을 위한 ‘교양음악’의 방향

최원선

##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계의 중요 이슈 중 하나는 인성(人性)교육<sup>1)</sup>에 관련된 것들 일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2013)<sup>2)</sup> 결과에 따르면, ‘인성교육이 학교 교육과정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답변이 1위(65.1%)를 차지할 만큼, 인성교육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으며, 인성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2015 ‘인성교육진흥법’<sup>3)</sup> 제정(制定)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인성교육에 관한 움직임은 교육의 현장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해 반영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본 연구의 화두(話頭)는 ‘대학교양 교과목으로서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떠한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는가?’이다.

지금까지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이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명맥이 ‘취업사관학교’로 인식되어 버린 여건 속에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등교육과정까지의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위주일 수밖에 없음을 시인한다면, 대학은 교육의 장기적 안목에서라도 인성교육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대학교양교육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이제,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의 입장에서 재조

---

1)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9-09(“학교 인성교육 실태 분석”)에서는, ‘인성’을 보다 긍정적이고 건전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위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으로, ‘인성교육’을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체계화되고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의 개념은 ‘사람들이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국가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의 습관화를 위한 일련의 교육’을 의미한다. 이로써, 인성교육은 존중, 정의, 민주 시민적 자질,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 등의 핵심 윤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는 학습과정으로서,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보증하는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게 하려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주 외, “학교 인성교육 실태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9-09, 2009), 17.

2) 이강주 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3-35, 2013), ii.

3)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462&efYd=20150721#0000> [2015년 10월 10일 접속].

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의 교육과정과 인성교육이 연계성을 갖고 상호보완적으로 접근되는 방법론들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고, 대학교양은 지식 전달적 차원을 넘은 인성교육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 목표를 세워 나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인문·예술 영역의 교양강좌들의 교육과정 개편과 운영을 통해 점차 그 해결책들을 구해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대학 인성교육의 한 방안이 교양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전제를 안고,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구현(具現)’이란 입장에서 교양음악교육을 통한 대학 인성교육의 의의를 고찰하며, 대학교양 및 음악 분야에서 다뤄진 인성교육의 방법론적 접근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교양음악’으로의 대학 인성교육 연구에 대한 학문적 요구를 조명한다. 또한 우리나라 28개 대학<sup>4)</sup>에서 ‘교양음악’으로 개설되어 있는 음악 관련 교과목들의 현황 분석을 통해 ‘교양음악’이 가지고 있는 인성교육 교과로서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타진하므로, 이를 통해 대학 인성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2. 국가정책과 대학 인성교육

2장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목표와 교육정책의 측면에서 ‘대학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함으로써,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대학교양에서의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의 의의를 돌아보고자 한다.

### 2.1 2015 인성교육진흥법과 대학 인성교육

지난 1월 공포(公布)된 ‘인성교육진흥법’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현안을 단편적으로 지적하는 한 예가 될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의 인성교육이, 흔히 ‘밥상머리 교육’이라 하여, 가정교육을 통해 책임지던 시대에서 벗어나 국가가 나서 법제화하고 주창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향간에는 울초, ‘인천어린이집 폭행사건’<sup>5)</sup>을 필두로 연일 터지는 인간의 도(道)를 넘는 흉흉한 뉴스들 속에 ‘인성’에 대한 교육과 평가의 법제화를 두고, 정부의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도 있다. 그러나 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이라도 인간 사회의 모순적 상황들을 풀어 나갈 해법은 바로 ‘교육’이라는 시대적 자각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국가적·사회적 움

4) 지방거점대학교 10곳과 ‘2015-16 *Times Higher Education* (THE) 선정, 세계대학평가’ 상위 800위권에 포함된 우리나라 대학 24개교를 포함, 총 28개 대학을 표본으로 한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3339046609530296&DCD=A00702&OutLnkChk=Y> [2015년 10월 10일 접속].

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15/201501150149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15/2015011501499.html) [2015년 10월 10일 접속].

직임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의 법안을 보면,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핵심 역량’ 등에 대해 정의<sup>6)</sup>를 우선적으로 내리고 있으며, 인성교육의 기본방향<sup>7)</sup>을 크게 세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성교육이, 첫째,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 발표된 2015 교육부 업무보고<sup>8)</sup>에서는,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학교”란 카테고리 아래, 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체계적 인성교육 강화, 실천적 체험활동 강화,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문·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 중 인성교육진흥법의 기본방향에서 말하는 ‘장기적 차원’이라는 부분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말하는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예술 교육 활성화’의 측면을 연결해 보자. 이 두 가지의 목표를 혼용하면 본 연구가 지향하는 궁극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교양음악교육’이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되고 시행될 때, ‘우리는 인성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의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물론, ‘인성교육진흥법’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지칭하는 ‘학교’는 일차적으로 ‘대학’이 아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은 이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가적 차원의 이상 실현을 목표로 하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꼭 갖추어야 하는 시민교육의 입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이라는 마지막 공적 교육기관에 인성교육을 적극적인 자세로 주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 2.2 2015 교육정책과 대학 인성교육

지난 1월, 교육부에서는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표어 아래 교육부 업무계획<sup>9)</sup>을 발표하였다. 교육부 업무계획의 열 가지 항목 중, 본 연구의 주제적 입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안(案)에 집중해 보자. 이는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및 대입개선”이란 명제 아래 인성교육 내용을 확대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9월)하겠다는 것,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으로 대학 평가와 연계하여 정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 시행하겠다는 것, 그리고 “인문학 진흥 종합계획을 통한 21세기형 인문학 창출”로 소규모 인문랩(lab) 육성 및 2단계 인문학한국(HK) 사업 기획·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각각의 안들을 큰 패러다임에 두고

6)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462&efYd=20150721#0000> [2015년 10월 10일 접속].

8)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 ze=10&currentPage=7&encod eYn=Y&boardSeq=58287&mode=view> [2015년 10월 10일 접속].

9)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 ze=10&currentPage=7&encod eYn=Y&boardSeq=58317&mode=view> [2015년 10월 10일 접속].

보면 절대 하나의 그림으로 엮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에 있어 인성이 중요하고 인성을 위해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전공들, 이를테면 인문학 관련 전공들은 구조개혁을 통해 통폐합하겠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같은 교육부의 입장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의 전공 통폐합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며, 대학 시스템이 경제원리를 중심으로 돌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대학마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경제적 산물을 내어야 한다면, 아웃-풋 자체가 가시화될 수 없는 인문학 관련 전공들에 대한 홀대로 연결될 것이 자명하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적 기반을 잃고, 동시에 도덕적 기반마저 잃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말하는 ‘인성교육’을 대학은 어떤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정부의 개입과 정책에 대해 대학이 얼마만큼을 반응하고, 또 어떤 선에서 독자적 노선을 걸을 수 있겠는가? 그동안 대학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나 고려해 왔는가? 지금까지 대학은 학생들의 인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추구하고 실제로 진행해 왔는가? 이 같은 조건에서 대학의 이상적인 인성교육의 실현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

먼저, 대학 인성교육은 교양교육을 통해 대학이 정하는 인성교육의 방향과 범위에 대한 설정이 요구된다. 이에, 인문학의 하위 갈래이자 인류와 존속을 함께해 온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은 교양교육적 차원의 인성교육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교육적 매개가 될 수 있다. 음악은 말과 글로서 전달되는 지식체계가 아닌 청각의 힘으로 존재하는 예술로, 음악이라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체계를 통한 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나아가 인문학을 활성화하는 길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효과적인 인성교육으로의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양음악’ 교과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활용은 앞서 지적된 대학교육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학은 이를 통해 학교별 줄 세우기 식의 평가에서 한 발짝 떨어져 나와 점차 대학 본연의 색채들을 찾게 될 것이고, 이 시대의 이상에 발맞춰 국가와 사회가 원하는 개인의 인성함양(涵養)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 3. 대학 인성교육 연구의 실재

3장에서는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이 일차적으로 교양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대학교양과 인성교육의 상관성 및 음악과 인성교육의 상관성들을 다룬 국내 학술연구들의 선행연구를 통해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교양음악으로의 인성교육 연구’가 갖는 학문적 요구에 대해 조명하기로 한다.

#### 3.1 대학교양에서의 인성교육 연구

먼저, 대학교양에서 다루어진 ‘인성교육’에 대한 선행 학술연구들<sup>10)</sup>을 통해 이에 관한 연구 경향들을 파악해보자.

다음 <표 1>은 우리나라 대학교양의 인성교육에 관해 다룬 학술연구들의 목록이다.

<표 1> 대학교양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제목	비고
이주희·최명선·박희현 (2009)	대학생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설문연구
박숙희·유경훈(2011)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 그리고 창의적 사고의 관계	설문연구
고시용·백현기(2012)	대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한 마음과 행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사례연구
박은민(2012)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설문연구
신정원(2012)	예술대학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개발	논의
강민경(2013)	대학 교양 수업에서의 인성교육 사례	사례연구
김성원(2013)	교양교육과 인성교육의 연계방안	논의
지희진(2013)	대학 교양 인성 교육에 대한 대학생 인식탐색	설문연구
손승남(2014)	대학 인성교육의 교수학적 고찰	논의
홍순희(2014)	융합형교양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인성교육의 방안과 ‘새로운’ 인간상 모색	사례연구
손승남·임배(2015)	대학 인성교육으로서 ‘삶의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가능성 탐색	논의
고재석·원용준·이천승 (2015)	대학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대학교양의 인성교육을 다룬 연구들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대학에서 독립된 인성교육 교과목이나 교양과목과 연계된 인성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들을 설문, 혹은 사례연구에 따른 결과로써 제시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대학교양에서의 인성교육이 갖는 의의와 교수법적 방법론들에 대한 논의를 다룬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첫 번째 경우 중, 이주희·최명선·박희현(2009)은 “대학생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서 대학 신입생에게 교양강좌를 통한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 실시 결과, 자아정체감의 주요 영역인 주도성과 친밀성을 향상시키며, 자신에 대해 지각하는 학업 능력과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에 있어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박숙희·유경훈(2011)은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 그리고 창의적 사고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인성 및 창의적 사

10) 이 고찰을 위하여 “한국학술정보서비스”의 검색(“대학교양\*인성교육”)을 이용하였으며, 이 중, 본 연구와 연관된 선행된 학술연구들을 선택·취합하였다.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viewYn=CL&query=대학교양+인성교육&queryText=&strQuery=대학교양+인성교육&iStartCount=0&iGroupView=5&icate=re\\_a\\_kor&colName=re\\_a\\_kor&exQuery=&pageScale=20&strSort=RANK&order=%2FDESC&onHanja=false&keywordOption=0&searchGubun=&p\\_year1=&p\\_year2=&dorg\\_storage=&mat\\_type=&mat\\_subtype=&fulltext\\_kind=&t\\_gubun=&learning\\_type=&language\\_code=&ccl\\_code=&language=&inside\\_outside=&fric\\_yn=&image\\_yn=&regnm=&gubun=&kdc=&resultSearch=false&listFlag=&keywordRecom=&keywordRecom=](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viewYn=CL&query=대학교양+인성교육&queryText=&strQuery=대학교양+인성교육&iStartCount=0&iGroupView=5&icate=re_a_kor&colName=re_a_kor&exQuery=&pageScale=20&strSort=RANK&order=%2FDESC&onHanja=false&keywordOption=0&searchGubun=&p_year1=&p_year2=&dorg_storage=&mat_type=&mat_subtype=&fulltext_kind=&t_gubun=&learning_type=&language_code=&ccl_code=&language=&inside_outside=&fric_yn=&image_yn=&regnm=&gubun=&kdc=&resultSearch=false&listFlag=&keywordRecom=&keywordRecom=) [2015년 10월 10일 접속].)

고는 서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창의적 인성을 매개변인으로 창의적 사고에 영향을 주며, 창의성 교육의 방향이 다각화된 연구결과의 축적을 기반으로 종합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고시용·백현기(2012)는 “대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한 마음과 행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서 대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마음과 행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에게 있어 자아효능감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은민(2012)은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에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결과, 심리·사회 성숙 전체 점수와 하위요인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므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심리·사회 성숙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강민경(2013)은 “대학 교양 수업에서의 인성교육 사례”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교양 ‘말과 글’ 수업에서 가정의 중심인 ‘아버지와의 관계 맺기’ 과제를 통한 인성교육의 수행방법들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결과로써 제공하였다. 지희진(2013)은 “대학 교양 인성 교육에 대한 대학생 인식탐색”에서 대학생이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있어 인성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대학 교양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설문연구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홍순희(2014)는 “융합형교양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인성교육의 방안과 ‘새로운’ 인간상 모색”에서 융합형교양교과목인 <힐링을 위한 음악과 문학의 만남>을 통합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화된 교과목으로 제공하며, 융합형교양교과목과 인성교육의 연계를 통해 치유·종교·사회문화·음악·문학을 활용한 통합적인 인성교육을 목표로 삼은 운영 사례를 다뤘다.

두 번째 경우 중, 신정원(2012)은 “예술대학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개발”에서 대학의 교양교육에 요구되는 조건을 바탕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위한 교양교육의 프로그램의 구성조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특성과 인성교육, 융합교육 등을 다뤘다. 김성원(2013)은 “교양교육과 인성교육의 연계방안”에서 대학 교양교육이 인성교육에서 분리된 원인들을 역사적 고찰을 통해 찾아보고, 인성교육의 기본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손승남(2014)은 “대학 인성교육의 교수학적 고찰”에서 교수학의 원리에 따라 인성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의 순서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며, 특히 대학 인성교육의 평가가 과정 자체의 평가로써 상호 협동정신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손승남·임배(2015)는 “대학 인성교육으로서 ‘삶의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가능성 탐색”에서, 신체적 강화를 통해 자신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공감의 가치를 배우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도된 ‘삶의 치유 프로그램’을 인성교육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고재석·원용준·이천승(2015)은 “대학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고전 『논어』를 통한 교과교육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내용과 그 방법들을 다뤘다.

이상과 같이, 대학교양에서의 인성교육을 다룬 연구들은 인성교육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인성교육을 독립된 교양교과목으로 운영하거나 특정 교양교과와의 연계성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교육적 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양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실제적인 방법론의 제시나 과목별 운영 사례 등 현장에서의 접목을 다룬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요구되는 것이며, 그 결과들을 통해 대학의 교양교육과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연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들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음악’ 과의 융합형 교과들을 언급하며 인성교육 매개로서 음악의 중요성을 거론하는 인성교육 연구들이 나오는 것에 비해, 정작, 대학교양의 ‘음악 분야’ 에서는 음악에 대한 전문적 시각을 갖고 인성교육에 접근한 연구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교양교육연구의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예술영역 연구의 체계화, 인성교육 연구의 교과별 균형을 위해서도 음악에 대한 대학 인성교육의 기초 연구들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3.2 음악 분야에서의 인성교육 연구

<표 1>에서의 연구들과 같이, ‘교양음악’ 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전무하다. <표 2>는 연구대상과 연구의 범위를 음악 분야 전반으로 넓힌 결과, 국내 학술연구들<sup>11)</sup> 중, 음악을 매개로 한 인성교육을 다룬 연구들이다.

<표 2> 음악 분야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저 자	제 목	대 상	비 고
오상규·김원중(2007)	음악활동을 활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사회성, 교육 관계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	설문연구
권혜인·이화식(2011)	법무부 산하의 특성화 학교인 고봉중,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적용한 인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등교육	사례연구
민정훈(2011)	후마니타스 음악교육의 함의적 가치와 실천에 관한 논의	중등교육	논의
박진홍(2011)	음악비평 활동의 창의·인성 교육적 접근	중등교육	논의
김미숙·권혜인(2013)	음악교과에서의 인성개념과 인성교육	중등교육	논의
정은경·정진원(2013)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역량 및 인성교육에 관한 고찰	중등교육	논의

11) 이 고찰을 위하여 “한국학술정보서비스”의 검색(“음악교육\*인성교육”)을 이용하였으며, 이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선택·취합하였다.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viewYn=CL&query=음악+인성교육&queryText=&strQuery=음악+인성교육&iStartCount=0&iGroupView=5&icate=all&colName=re\\_a\\_kor&exQuery=&pageScale=20&strSort=RANK&order=%2FDESC&onHanja=false&keywordOption=0&searchGubun=&p\\_year1=&p\\_year2=&dorg\\_storage=&mat\\_type=&mat\\_subtype=&fulltext\\_kind=&t\\_gubun=&learning\\_type=&language\\_code=&ccl\\_code=&language=&inside\\_outside=&fric\\_yn=&image\\_yn=&regnm=&gubun=&kdc=&resultSearch=false&listFlag=&ids=&titles=&taxonIds=&description\\_kos=&kind=&keywordRecom=&keywordRecom=](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viewYn=CL&query=음악+인성교육&queryText=&strQuery=음악+인성교육&iStartCount=0&iGroupView=5&icate=all&colName=re_a_kor&exQuery=&pageScale=20&strSort=RANK&order=%2FDESC&onHanja=false&keywordOption=0&searchGubun=&p_year1=&p_year2=&dorg_storage=&mat_type=&mat_subtype=&fulltext_kind=&t_gubun=&learning_type=&language_code=&ccl_code=&language=&inside_outside=&fric_yn=&image_yn=&regnm=&gubun=&kdc=&resultSearch=false&listFlag=&ids=&titles=&taxonIds=&description_kos=&kind=&keywordRecom=&keywordRecom=) [2015년 10월 10일 접속].)

정진원·오지향·정은경 (2013)	음악교과에서의 역량, 인성교육 요인에 관한 교사인식 FGI 연구	중등교육	설문연구
김미숙·권혜인 (2014)	음악교과에서의 인성요소 고찰	중등교육	논의
조성기·민경훈· E. J. Choe(2014)	음악교과에서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중등교육	설문연구
장근주(2015)	음악교육에서 인성교육의 현황과 과제	초·중등 교육	논의

음악 분야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의 방향은 설문이나 사례연구, 논의 등으로, ‘대학교양의 인성교육’을 다룬 연구들과 연구대상을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전자에 속하는 연구 중, 오상규·김원중(2007)은 “음악활동을 활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사회성, 교육 관계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음악활동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사회성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이는 특히 사회성과 교우관계 총점 및 교우관계 하위영역 중 협동적 인간관계, 사회적 조망수용능력의 향상, 대인불안의 하위영역 중에서 특정인에 대한 대인불안의 감소에 있어 일반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권혜인·이화식(2011)은 “법무부 산하의 특성화 학교인 고봉 중,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적용한 인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음악과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는데, 음악과 내용 체계를 ‘체험, 표현, 이해’라는 대영역으로 나누고, 체험의 하부 영역을 ‘나, 우리, 사회’, 표현의 하부 영역을 ‘가창, 기악, 창작’, 이해의 하부 영역을 ‘음악의 요소와 원리 이해, 음악 문화의 이해, 음악 감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진원·오지향·정은경(2013)은 “음악교과에서의 역량, 인성교육 요인에 관한 교사인식 FGI 연구”에서 ‘역량’과 ‘인성’의 음악교과적 의미와 상호 연관성, 수업에서의 적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도출하였다. 조성기·민경훈·E. J. Choe(2014)은 “음악교과에서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서 초·중등학교 음악교사와 음악 관련 전문가로부터 요구분석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론적 고찰을 하여 음악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의 기초를 세우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뤘다.

후자에 속하는 연구 중, 민경훈(2011)은 “후마니타스 음악교육의 함의적 가치와 실천에 관한 논의”에서 인간성 회복으로서의 후마니타스 음악교육의 가치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것의 실천을 위한 음악교사들의 태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박진홍(2011)은 “음악비평 활동의 창의·인성 교육적 접근”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음악비평 활동이 음악교과의 본질을 살리며, 창의인성 교육의 요소들이 학습될 수 있는 제재를 선정하고 효과적인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활발한 사고와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미숙·권혜인(2013)은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 개념과 인성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을 재정립하며,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의 원리를 ‘자기 이해의 원리, 자기 표현의 원리, 균형과 조화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정은경·정진원(2013)은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역량 및 인성교육에 관한 고찰”에서 현재 강조되고 있는 역량중심 교육과 인성교육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역량 및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역량과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조망하였다. 김미숙·권혜인(2014)은 “음악교과에서의 인성 요소 고찰”에서 음악교과에서 인성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높여 주는 인성 요소를 살펴보고 학교 음악 교육에서 음악과 인성 요소에 따른 학습활동을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근주(2015)는 “음악교육에서 인성교육의 현황과 과제”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의 초·중등학교 음악수업을 관찰하고 교사 면담을 통해 인성교육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며, 인성교육 핵심 덕목과 인성역량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다뤘다.

위의 연구들은 음악 분야에서 다루지는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들 대부분이 ‘중등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이는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으로의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중·고등학생이며,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의 요구가 중등교육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대로, 고등교육을 대상으로 한 대학의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은 음악교육의 현장에서조차 대학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 방법론적 접근이나 교수법에서 미흡하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이는 대학 음악교육으로서 교양교육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인성교육을 다룬 음악 분야의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독립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타 영역과의 접목이나 연계를 이룬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점은 대학교양의 인성교육 연구들과 구별된다. 이러한 점은 현재,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 연구의 깊이와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학교양과 음악 분야에서 다루지는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가 갖는 공통점이 있다. 연구 주제, 목적, 방법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개 연구의 시작이 ‘인성’이 갖는 사전적 정의로부터 출발해, 인성교육에 대한 ‘관련 요소’로서 ‘인성’을 다룬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성’에 대한 정의가 보편적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나, ‘인성교육’에는 그만큼 교육학적 측면의 다각화된 관점들이 요구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각 영역별로, 각 분야별로 더 세분화된 연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 4. 대학 인성교육을 위한 ‘교양음악’

4장에서는 ‘인성의 성장을 도울 교양교육으로의 음악’이라는 거시 목표 아래, 우리나라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음악 관련 교양 교과목들의 현황 분석을 통해 인성교육 교과로서 ‘교양음악’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타진하므로, 대학 인성교육을 위한 ‘교양음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4.1 ‘교양음악’을 통한 대학 인성교육의 목표

2012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표된 “예술인성교육정책 최종보고서<sup>12)</sup>”에서는 예

술교과<sup>13)</sup>를 통한 인성교육에 있어 의미 있는 연구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적 접근이 그것인데, 여기서는 ‘예술인성교육’을 ‘예술의 심미적, 정서적 특성과 문화사회적 역할 및 기능을 바탕으로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하며, 인성교육을 ‘개인적 인성, 관계적 인성, 사회적-공동체적 인성’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sup>14)</sup> 즉 예술인성교육에는 체험의 주체인 ‘개인적 측면’, 집단적 체험을 통한 ‘관계적 측면’, 다차원적인 공동체 체험을 통한 ‘사회적 측면’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관계들이 개인의 내적 차원에서, 구성원 간으로, 사회 환경으로 점차 확대된다는 시각이다. 또한 예술매체를 활용한 경험은 수용적 체험으로부터 표현적 체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접근과 다양한 성취 영역을 포함하게 된다고 보는데, 그러므로 예술체험을 통해 예술의 주체자는 첫째, 정서 표출과 정서순화, 나아가 자아인식을 하게 되며 이로써 자기 조절, 자아존중감, 정체성을 함양하게 되고, 둘째,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반이 되는 예술을 통해 새로운 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열어 ‘나와 타인’의 관계를 인식하고 상대를 수용하며, 나아가 ‘우리’라는 집단 내에서 집단의 통념과 가치관,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되고, 셋째, 궁극적으로 예술을 통한 사회화로써 사회전반에 걸친 문화의 이해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신과 사람들과의 공동체 의식, 문화적 소양<sup>15)</sup>을 공유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본다.

다음 <표 3>은 예술인성교육의 요소들을 음악활동 중심에서 풀이한 것이다.

<표 3> 음악활동과 인성요소<sup>16)</sup>

인성역량	구성원	핵심요소	음악활동의 예시
개인적 인성	나, 자신	미적체험 자주성 자기조절 자존감 자아인식 정체성	독창/독주활동, 음악감상, 개인창작
관계적 인성	나와 너, 우리	배려 관용 존중 공감 신뢰 소통	목소리 또는 악기로 소집단 표현: 2중창/2중주/합창/합주, 타악기 활동 (사물놀이/ 난타), 밴드동아리 활동, 소규모 공동창작
사회-공동체적 인성	모두, 다함께	협동 리더쉽 공익 공동체 문화적 소양	목소리나 악기로 대집단 표현: 다양한 합창/합주활동, 뮤지컬활동, 대규모 협동창작

이러한 다각화된 인성교육에 대한 시각은 미국의 ‘사회성, 감성교육’을 담당하는

12) 최경희 외, “예술인성교육의 비전 및 실천과제 개발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ACES-1270-R001, 2012).

13) 본 보고서의 ‘예술’은 음악과 미술에 의한 매개를 뜻한다.

14) 최경희 외, “예술인성교육의 비전 및 실천과제 개발 연구,” 13-16.

15) 문화적 소양이란 소통을 목적으로 한 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 문화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개인의 전통에 대한 인식, 문화유산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 어떤 문화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의미화, 일상성에 대한 가치 탐구 등에 대한 능력을 말한다. 김염, “TV뉴스를 활용한 문화적 리터러시 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7권/1(2010); 최경희 외, “예술인성교육의 비전 및 실천과제 개발 연구,” 16. 재인용

16) 최경희 외, “예술인성교육의 비전 및 실천과제 개발 연구,” 18.

CASEL(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sup>17)</sup>의 핵심요소와도 일맥상통한다. CASEL에서는 ‘사회성, 감성교육’을 ‘자기인식(self-awareness), 자기관리(self-management), 사회인식(social awareness), 관계기술(relationship skills),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responsible decision making)’ 등으로 요소화 시키고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요소에도 ‘개인적 인성, 관계적 인성, 사회-공동체적 인성’의 측면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 즉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의 시작이며, 개인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조절 능력은 타인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관계기술의 출발이 되며, 이로 인한 긍정적인 관계형성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 의사결정에 있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판단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표 4> 인성역량과 CASEL의 핵심요소

인성역량	CASEL의 핵심요소
개인적 인성	자기인식, 자기관리
관계적 인성	사회인식, 관계기술
사회-공동체적 인성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표 5>는 <표 3>과 <표 4>의 관계들을 응용해 대학 인성교육의 교육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각각은 인성교육이 갖는 ‘개인적-상호적-사회적 측면’에 작용하는 핵심요소로서 설명된다. 또한 ‘교양음악’ 교과를 실기교과와 이론교과로 나눠 대학 인성교육의 목표를 정하되, 실기교과를 ‘음악의 직접적 표현’이라는 적극적 측면에서 동(動)적인 교과로, 이와 상대적으로 이론교과를 ‘음악의 간접적 경험’이라는 소극적 측면에서 정(情)적인 교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5> ‘교양음악’을 통한 대학 인성교육의 목표

인성역량의 측면	교육 목표
개인적 측면	· 실기교과: ‘개인실기’ (가창, 악기 연주 등)/ 개인활동을 통한 자아표현 · 이론교과: ‘교양음악’ 교과를 통해 다양한 음악들(시대별, 작곡가별, 장르별, 악기별, 연주별)을 감상하므로 음악에 대한 미적 체험, 자아인식, 자아정체성 확립
상호적 측면	· 실기교과: ‘그룹레슨’ (클래스 피아노, 밴드 등)/ 소규모 공동활동을 통한 소집단 표현 · 이론교과: ‘교양음악’ 교과를 통한 음악적 질서와 규칙의 관계 이해, 팀프로젝트, 조별활동, 토론 등을 통한 조원 간의 소통,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및 신뢰와 책임 등 관계형성의 기술 체득

17) 미국의 ‘사회성, 감성 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비영리 기관인 CASEL의 프로그램은 미국의 8개 주, 1천 4백여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  
http://www.casel.org/social-and-emotional-learning/core-competencies [2015년 10월 10일 접속].

사회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기교과: ‘교양합창’ (합주, 뮤지컬 등)/ 대규모 협동활동을 통한 대 집단 표현</li> <li>· 이론교과: ‘교양음악’ 으로의 체계적인 교과교육을 통한 문화적 소양의 함양으로써 사회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li> </ul>
--------	--

이 같은 ‘교양음악’ 을 통한 인성교육의 입장에서, 인성역량들과 CASEL의 핵심요소들을 고려할 때, 그 궁극의 목적은 ‘사회적 측면의 인성교육’ 에 방점을 둘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인성교육이 지향할 바는 중등교육에서와는 달리,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의 입장에서 음악으로의 소통이 시대와 시대,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되며, 이에 따른 개개인의 문화적 소양이 나아가 한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결정짓게 한다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4.2 대학 인성교육 교과로서의 ‘교양음악’

우선, ‘교양음악’ 이 갖는 대학 인성교육 교과로서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타진하기 위해, 그 표본으로 우리나라 지방권역을 대표하는 지방거점대학교<sup>18)</sup> 10곳과 2015-16 THE<sup>19)</sup> 세계대학평가 기준, 상위 800위권에 든 우리나라 대학 24개교를 포함해 총 28개 대학의 음악 관련 교양교과목의 개설 현황<sup>20)</sup>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다음 <표 6>은 각 대학의 ‘교양음악’ 교과목들의 목록이다.

<표 6> 대학별 ‘교양음악’ 의 교과목 목록

대학명 /과목 수	구분(영역)	교과목명	THE 순위	음악 전공 유무
-----------------	--------	------	-----------	----------------

18) 지방거점국립대학교(地方據點國立大學校)는 대학교육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의 대표적인 국립대학교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종합대학교를 가리킨다. 지방거점국립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설치된 도(道) 단위 광역행정구역마다 한 개의 대학이 설정되어(경남권만 2개 대학) 총 10개 대학이다. 강원권(강원도)의 거점 대학교인 강원대학교, 충북권(충청북도)의 거점 대학교인 충북대학교, 충남권(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거점 대학교인 충남대학교, 전북권(전라북도)의 거점 대학교인 전북대학교, 전남권(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 거점 대학교인 전남대학교, 경북권(경상북도, 대구광역시)의 거점 대학교인 경북대학교, 경남권(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 거점 대학교인 경상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의 거점 대학교인 제주대학교가 이에 속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지방거점국립대학교> [2015년 10월 10일 접속].

19)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Times Higher Education*의 약자

20) 교과목 목록들은 각 대학 홈페이지상에 게재된 내용을 따른다.

21)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liberaledu.snu.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22)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culedu.pusan.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23)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fle.knu.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24)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fle.jnu.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25) 전북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http://fle.jbnu.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26) 충남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http://ile.cnu.ac.kr/flow/#loaded> [2015년 10월 10일 접속].

서울대 21)/15	· 학문의 세계(문화예술)  · 선택교양(예술실기)	· 음악론입문, 서양문명과 음악, 현대음악의 이해, 음악속의 철학, 음악의 원리, 한국음악의 이해, 서양음악의 이해 · 교양연주(합창, 색소폰 1, 2, 가야금, 거문고, 단소, 해금), 세계음악	85위	0 (국악 0)
부산대 22)/10	· 교양선택(사상과 역사) · 교양선택(문학과 예술)  · 교양선택(융복합)	· 한국의 노래와 역사 · 국악으로 듣는 한국 문화론, 서양의 음악과 사회, 문화콘텐츠 한국음악, 삶의 소리 흥의 소리 한국의 민요, 서양 음악의 역사, 재미있는 우리 음악 이야기, 전통 예술의 이해, 한국 음악과 영화 · 독일어권 음악과 문화	501-600 위	0 (국악0)
경북대 23)/4	일반교양	음악의 이해, 대중음악의 이해, 오페라 여행, 국악의 이해	601-800 위	0 (국악0)
전남대 24)/1	일반교양(문화예술)	음악의 이해	601-800 위	0 (국악0)
전북대 25)/6	· 커뮤니티리더십  · 글로벌파트너십	· 단소, 판소리, 판소리의 이해, 한국전통음악의 이해 · 오페라&뮤지컬, 클래식음악기행	601-800 위	0 (국악0)
충남대 26)/3	· 핵심교양(창의융합) · 일반교양	· 음악의 이해 · 음악의 이해, 한국음악의 이해	601-800 위	0
강원대 27)/2	균형교양(예술과 건강)	서양 음악의 이해, 음악의 이해	.	0
경상대 28)/4	· 핵심교양  · 기초과정	· 국악의 이해, 다양한 악기의 세계, 서양 음악의 이해 · 음악개론	.	X
제주대 29)/5	계열기초	국악실기의 기초, 음악의 이해, 음악감상, 대중음악을 즐겨라, 음악여행	.	0 (국악0)
충북대 30)/2	· 심화교양 · 특성교양	· 이론과 감상 · 합창	.	X
포항공 대31)/1	교양선택(예술)	음악의 이해	116 위	X
한국과 학기술 원32)/1	인문선택(문화예술)	음악현상의 이해	148 위	X

성균관 대33)/1	균형교양(인간/문화)	음악의 이해	153 위	X
고려대 34)/2	핵심교양(문학과 예술)	현대음악의 이해, 클래식음악의 이해와 감상	251- 300 위	X
광주과 학기술 원35)/7	· 예체능필수(음악) · 인문선택(문화와 예술)	·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기타, 밴드 · 서양음악의 이해, 오페라 와 판소리	301- 350 위	X
연세대 36)/9	· 필수교양(문화와 예술) · 선택교양(인문·예술)	· 영화로 보는 현대음악, 대 중음악의 이해, 음악사, 음 악감상, 음악의 기초이론 · 음악과 사상, 전통음악의 이해, 아시아음악문화, 음악 의 미학적 이해	301- 350 위	0
한양대 37)/7	일반교양	현대음악의 이해, 가곡감상 과 가창, 한국가곡의 이해, 대학합창, 쉽게 듣는 서양오 페라, 전통음악 감상, 고전 음악의 이해	351- 400 위	0 (국악0)
경희대 38)/8	· 자유이수(예술)  · 자유이수(기타)	· 대중문화와 음악, 공연예 술의 이해와 감상, 동서양음 악비교, 합창의 재발견, 재 즈피아노실기, 가창실기, 재 즈음악의 이해와 감상 · 클래식음악산책	401- 500 위	0
울산대 39)/1	교양선택	음악의 이해	401- 500 위	0
이화여 대40)/1	핵심교양(표현과 예술)	서양음악의 이해	401- 500 위	0 (국악0)
중앙대 41)/2	· 핵심교양(존재 구축) · 선택교양(존재 구축)	· 음악의 이해와 감상 · 국악의 이해와 감상	501- 600 위	0 (국악0)
건국대 42)/1	핵심교양(문화예술)	음악의 이해	601- 800 위	0
서강대 43)/2	일반선택(예술과 체육)	한국 음악의 역사와 감상, 서양 음악의 역사와 감상	601- 800 위	X
서울시 립대44) /2	심화교양	음악을 통한 세상보기, 전통 음악이야기	601- 800 위	0

27) 강원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fle.kangwon.ac.kr/index.php> [2015년 10월 10일 접속].

28) 경상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fge.gnu.ac.kr/main/> [2015년 10월 10일 접속].

29) 제주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http://jile.jejunu.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세종대 45)/7	· 중핵필수선택(예술과 생활) · 자유선택교양(예술과 생활)	· 서양음악감상 · 교양합창, 뮤지컬의 이해와 감상, 관현악의 이해와 감상, 영화음악의 세계, 오페라의 이해와 감상, 피아노음악의 이해와 감상	601-800 위	0
아주대 46)/2	· 교양필수(문화와 예술) · 교양선택(기타)	· 음악의 세계 · 합창	601-800 위	X
영남대 47)/3	중핵교양(예술·체육)	서양음악의 이해, 전통음악의 이해, 음악감상 및 비평	601-800 위	0 (국악0)
인하대 48)/7	· 핵심교양(미적 체험과 표현) · 일반교양(예술/체육/건강)	· 문학과 음악의 만남: 서정시와 사랑 노래, 예술가곡으로의 초대 · 시창과 청음, 서양음악사, 클래식 피아노, 합창, 교양가창	601-800 위	X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대학의 ‘교양음악’ 관련 교과들이 직접적으로 ‘인성교육’의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거나 교과 내용상 ‘인성교육’을 위해 특별히 개설한 경우, 혹은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갖는 경우를 찾아 볼 수는 없다. 다만, 성균관대와 중앙

- 30)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http://fole.chungbuk.ac.kr/index.do> [2015년 10월 10일 접속].
- 31)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http://hss.postech.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 32)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http://hss.kaist.ac.kr/main/main.php> [2015년 10월 10일 접속].
- 33)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http://hakbu.skku.edu/> [2015년 10월 10일 접속].
- 34) 고려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kuweb.korea.ac.kr/ge/> [2015년 10월 10일 접속].
- 35)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http://college.gist.ac.kr/?mid=gist3\\_1](http://college.gist.ac.kr/?mid=gist3_1) [2015년 10월 10일 접속].
- 36)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http://www4.yonsei.ac.kr/fresh/> [2015년 10월 10일 접속].
- 37) 한양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http://gs.hanyang.ac.kr/index.html> [2015년 10월 10일 접속].
- 38) 경희대학교 후마나칼리지: <http://hc.khu.ac.kr/v2/> [2015년 10월 10일 접속].
- 39) 울산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http://kr.ulsan.ac.kr/contents/about/organization/staff/Default.aspx?search=belong&belong=1675> [2015년 10월 10일 접속].
- 40) 이화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home.ewha.ac.kr/~cge/> [2015년 10월 10일 접속].
- 41)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http://ge.cau.ac.kr/index.php> [2015년 10월 10일 접속].
- 42) 건국대학교 교양교육센터: <http://sgedu.konkuk.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 43)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http://liberalartsedu.sogang.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 44) 서울시립대학교 창의공공교양교육부: <http://liberal.uos.ac.kr/liberal/main.do> [2015년 10월 10일 접속].
- 45)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http://cm.sejong.ac.kr/user/liberal/> [2015년 10월 10일 접속].
- 46)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http://uc.ajou.ac.kr/uc/index.jsp> [2015년 10월 10일 접속].
- 47)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http://cbs.yu.ac.kr/index.jsp> [2015년 10월 10일 접속].
- 48) 인하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s://generaledu.inha.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대에서는 ‘교양음악’ 을 과목 영역에 있어 ‘인간/문화’ , ‘존재구축’ 과 같은 카테고리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대학에서 이를 ‘문화/예술’ 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것과 구분된다. 또한 ‘교양음악’ 교과목은 필수영역의 선택과목 혹은 핵심교양이나 일반교양영역의 선택교양으로 구분되나 대개는 일반선택교양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교양음악’ 이 필수영역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졸업을 위한 필수이수교과와는 별개의 것이 될 수 있다.

각 대학별로 ‘교양음악’ 교과 개설에 있어 가장 눈에 띄이는 차이는 첫째, 교과목 수에 있다. 서울대의 경우, 관련 교과목이 15개에 이르나, 28개교 중 7곳은 단 한 과목이 이에 해당된다. 교과목 개설의 다양성 측면에서, ‘교양음악’ 교과목이 7개 이상인 경우(서울대, 부산대, 광주과학기술원,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인하대)를 보면, 음악대학이나 음악 관련학과의 유무가 과목개설 수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광주과학기술원과 인하대 제외) 또한 국악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에서도, 전남대와 이화여대 제외하면, 국악관련 교과목을 포함하고 있고, 재즈전공이 있는 경희대의 경우, 유일하게 재즈 관련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도 교양교과목 개설에 음악 관련학과와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예라 할 수 있다. 둘째, 가장 보편적인 ‘교양음악’ 교과목은 ‘음악의 이해’ 류이다. 대학에 따라, 크게 ‘서양음악의 이해’ 와 ‘한국음악의 이해’ 로 분리되어 있기도 하나, ‘(서양)음악의 이해’ 라는 과목으로서 개설된 경우가 우세하다. 또한 ‘클래식 여행, 산책, 세계’ 등의 수업 내용도, 교수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음악의 이해’ 와 크게 구별되지 않는, 음악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 과목들로 이와 동일한 류에 분류할 수 있다. 셋째, ‘교양음악’ 은 이론교과 중심으로 행해진다. ‘교양음악’ 에 있어 실기교과를 고려한 대학의 비중은 전체 28개교 중, 8곳이다. 실기교과 중 기악실기를 교과목으로 다루는 경우는 서울대, 광주과학기술원, 경희대, 인하대 4곳인데 비해, 성악실기를 교과목으로 채택한 경우를 보면, 서울대, 충북대, 한양대, 경희대, 세종대, 아주대, 인하대가 ‘합창’ 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중 경희대, 인하대에서는 ‘합창’ 뿐만 아니라 ‘가창’ 교과도 개설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 경희대, 인하대의 경우는 성악실기와 기악실기 모두를 ‘교양음악’ 교과로 포함하고 있다. 넷째, ‘교양음악’ 은 대개 선택교과목으로 주어진다. 즉 대학별로, ‘교양음악’ 이 다양한 영역별 구분을 갖고 있지만 필수영역의 선택교과로서 ‘교양음악’ 교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단 4곳(광주과학기술원, 연세대, 세종대, 아주대)뿐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인하대와 세종대의 교과 개설의 경우를 인성교육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조명할 수 있다. 즉 교과 개설의 내용이 <표 5>에서와 같은 교육 목표에 따라, 대학 인성교육의 ‘개인적-상호적-사회적 측면’ 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인하대 단 1곳뿐이다. 인하대는 인성교육이 갖는 실기교과의 ‘개인-소집단-대집단 표현’ 의 측면에서 ‘교양가창-클래스 피아노-합창’ 등을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전공의 전공기초과목에 해당하는 ‘시창과 청음’ , ‘음악사’ 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타 대학에서 시도하지 않은 융합형 교과인 ‘문학과 음악의 만남: 서정시와 사랑 노래’ 를 개설하고 있다는 점은 교양교과로서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변화성을 꾀하고 있다는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대학에는 이론교과로서 음악의 전반적 이해를 도울 ‘음악의 이해’ 나 음악의 미적 체험을 간접적인 방법으



로 도울 ‘음악감상’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세종대는 이 같은 시각에서 인하대와 상반되는 경우이다. 세종대는 실기교과로는 ‘교양합창’만이 개설되어 있으나, 이론교과로는 ‘서양음악감상, 뮤지컬의 이해와 감상, 관현악의 이해와 감상, 영화음악의 세계, 오페라의 이해와 감상, 피아노음악의 이해와 감상’ 등 국악을 제외한 각각의 음악 영역별 ‘이해와 감상’ 과목을 개설하므로, 다른 대학의 경우들과 비교해 보편적으로 음악의 세분화된 전문 분야별 접근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이론교과 구성에 가장 부합된 교과 개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적 시각을 <표 6>의 ‘교양음악’을 구성하는 전체 교과목으로 확대·적용해 보면, 총 116과목 중, 이론과목이 93개, 실기과목이 23개로, 이론과 실기 영역 간의 불균형은 물론, 인성교육의 ‘개인적-상호적-사회적 측면’에 비추어서도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교양음악’으로의 대학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구상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나, 이는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을 일차적으로 ‘이론’ 위주의 교과목, 그중에서도 ‘교양음악’ 교과 중, 개설 비중이 가장 높은 ‘음악의 이해’와 같은 이론교과를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배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이론교과와 실기교과의 4:1이라는 교과목 비율은 ‘교양음악’의 실기교과 개설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나, 이론교과의 압도적 우위를 다른 편에서 해석하면,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한 목표로써 이론교과목들의 이수 순서와 난이도 조정만을 통해, 교육과정의 대대적인 개편이나 포맷의 변경 없이도 ‘교양음악’ 교과들을 인성교육에 순차적으로 적용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 4.3 ‘교양음악’으로의 대학 인성교육을 위한 제언

4.2의 분석 결과들이 제시하는 바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경우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 개설된 교양음악 교과목 목록만을 가지고, 강의계획서에 대한 내용 분석이나 담당교수의 인터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목의 성격이나 교육적 방법까지 아우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표 6>의 결과는 ‘교양음악’이 교양교과목으로서 각 대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중요도, 교과목의 다양성 등의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 ‘교양음악’은 제도적으로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도 아니며, 표면적으로 인성교육의 목적에서 접근되는 교과의 시도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교양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의 내용이나 방법론을 논하기 앞서, 인성교육을 위한 대학의 제도적 문제와 음악교과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에, ‘교양음악’으로의 대학 인성교육을 위한 방향성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우선, 대학의 차원에서이다. 첫째, 대학 인성교육에 대한 대학별/교과별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인성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대학은 교양교과들의 재구조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며, 먼저, ‘교양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 개설이나를 선택해

야 할 것이다. 전자는 기존 교양과목들과 인성교육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는 독립된 교과로서의 인성교육을 의미한다. 대학이 전자를 선택할 경우, 대학 인성교육을 위해 ‘교양음악’ 에서도 이와 관련된 교과목의 필수이수과목 지정을 제안한다. 둘째, 제도적으로 ‘교양음악’ 을 필수이수과목으로 지정한다면, 일차적으로, ‘음악의 이해’ 와 같은 음악의 종합적인 이해를 돕는 이론교과로의 인성교육적 차원의 접근을 제안한다. ‘교양음악’ 의 교과목으로 가장 많은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음악의 이해’ 류에 해당하는 교과들은 음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이 요구하는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는 ‘교양음악’ 을 통한 인성교육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음악의 이해’ 와 같은 이론교과들이 지식의 단순한 전달이 되지 않도록 인성역량의 각 요소들이 수업 내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론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에는 토론과 소그룹 조별 모임을 포함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소통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상호적 측면과 문화적 소양을 위한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양음악’ 선택과목에 실기교과목의 개설이 요구된다. 그중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교양합창’ 의 개설은 가장 합리적인 실기교과가 될 수 있다. ‘교양합창’ 은 음악을 직접 경험하고 표현하며 또 구성원(합창단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집단의 색채(합창단)를 만들게 되는 교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표 6>을 기준으로, 대학의 ‘교양합창’ 의 개설은 전체 대학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교양합창’ 의 개설이 대학별로 현실화된다면, 이를 통해 개인은 주어진 곡의 배경을 이해하고, 기호화된 악보를 익히며, 스스로 소리 내어 음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인성을 익히고, 구성원들과의 음악적 조화를 통해 상호적 인성을 배우며, 미적 표현을 구성원 모두의 참여로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인성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음악이 갖고 있는 비언어적인 대집단표현능력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책임지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동을 통해 주어진 규칙을 지켜가는 인성의 가치 덕목들과 상호관계들을 음악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합창은 평가과정을 통해서도 인성교육적 접근이 적절한 교과이다. 합창의 평가내용에는 실기평가와 더불어 한 학기 동안 교수자의 지속적인 관찰에 의해 합창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 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합창수업에 참여한 일원으로서의 자기평가 및 파트를 구성하는 합창단원 간의 상호평가를 통해 인성역량들을 익히게 된다.

다음으로 ‘교양음악’ 교수자의 차원에서이다. 대학 인성교육의 표본이 마련되기 위해 교수자에게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기 마련인데, 첫째,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의 개념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들이 요구된다.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과 이에 따른 역량들에 대한 학문적 정립없이, ‘어떤 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타 교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성교육 사례들의 연구로,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이 갖고 있는 특징과 강점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타 교과와의 융합, 혹은 통합교육의 시각에서도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음악으로의 인성교육에 대한 기초 연구들은 인성교육이 현실화 되는 과정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항목인 것이다. 둘째, ‘교양음악’ 관련 교수자들의 재교육이 요구된다. 대학이나 학회를 중심으로,

‘교양음악’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교수자들의 재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의 내용과 교수법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으로의 교과운영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틀과 교육 요소들을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으로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의 내용들이 정리되고, 객관화된 교수·방법론 등을 통해 인성역량들을 키워낼 수 있으며, 인성교육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 준거기준까지, 각 단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음악으로의 인성교육을 위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대학은 물론, 이를 담당하는 초·중등교육 교사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과 홍보, 및 재교육의 과정들을 통해 연구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 5. 나가면서

이 연구는 2015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과 더불어, 교육정책의 실현을 위한 인성교육의 시각에서 대학의 ‘교양음악’을 조명하며, 현재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교양음악’ 구성 교과목들에 대한 과목 분석을 통해 인성교육 교과로서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타진하므로 이상적인 대학 인성교육으로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인성교육의 이슈화를 비단, 사회적 현상이나 국민적 관심사로만 볼 수는 없다. 대학의 인성교육은 교육의 당사자인 대학생 스스로의 문제기도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희진(2013)<sup>49)</sup>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90% 이상이 ‘대학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가 성인으로서 인성의 부족을 자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정작 대학 교육현장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지침이나, 내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거나 또 적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이 교양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문학의 하위 갈래이자 인류와 존속을 함께해 온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은 교양교육을 위한 합리적인 교육적 매개일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매개로서의 음악은 비언어적 소통체계의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 ‘개인적-상호적-사회적 인성’의 측면들을 교육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교양음악’이 필수이수과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교양음악’의 교과목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대학의 제도적 장치의 재구조화를 통해 인성교육을 위한 정적 방법으로 ‘음악의 이해’ 류의 필수이수화를, 동적 방법으로 ‘교양합창’의 선택교과 개설을 제안하였다. 즉 ‘음악의 이해’ 류를 통한 음악의 종합적인 이해와 ‘합창’이라는 개개인의 능동적 참여로 만들어지는 화합을 통한 집단적 음악표현은 대학 인성교육의 궁극적인

49) 지희진, “대학 교양 인성 교육에 대한 대학생 인식탐색,” 『교양교육연구』 제7권/2호(2013), 433-466. (충남 소재 J대학교 재학생 1,135명을 대상으로 대학 교양 인성 교육에 대한 대학생 인식을 조사·분석한 결과, ‘인성교육이 현재 대학생에게 필요성을 느낀다’가 1,025명(90.3%)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의 40.7%가 ‘대학생이자 성인으로서 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38.9%가 ‘스스로 자기개발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목표인 문화적 소통체계로의 정체성을 갖게 할 수 있다. 둘째, 음악교육 연구자의 입장에서 음악으로의 인성교육에 대한 기초적 연구와 ‘교양음악’ 교수자의 입장에서 대학 인성교육에 대한 재교육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는, 인성교육 관련 법규와 이에 따른 선례들을 갖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와 같이,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주도할 연구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피력(披瀝)이기도 하다. 교수자들은 이를 통해 인성교육에 관한 사례연구나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타당성을 검증받고, 현장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이 가져올 파장은 우리나라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교육’을 통한 삶으로의 ‘실천’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인성도 교육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인성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을 인성교육의 각 과정으로 편입시키는 일이 인성교육의 주체인 대학과 교수자의 몫을 상기하여야 할 때인 것이다. 인성교육은 CEP(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에서의 언급과도 같이 ‘윤리적 학습공동체’ (ethical learning community)<sup>50</sup>가 완성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검색어 |

교양음악(Music Courses as Undergraduate General Education), 대학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 in College), 교양교육(General Education), 인성교육진흥법(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

50) 미국의 인성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인 CEP(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에서는 ‘인성교육의 11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여덟번째 원칙으로 모든 학교 관계자들이 ‘윤리적 학습공동체’로서 인성교육을 공동으로 책임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http://character.org/more-resources/11-principles/> [2015년 10월 10일 접속].

## 참 고 문 헌

- 강민경. “대학 교양 수업에서의 인성교육 사례.”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3), 111-119.
- 고시용·백현기. “대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한 마음과 행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디지털융복합 연구』. 제10권/11(2012), 641-649.
- 고재석·원용준·이천승. “대학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 335-362.
- 권혜인·이화식. “법무부 산하의 특성화 학교인 고봉 중,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적용한 인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40권/3(2011), 155-183.
- 김미숙·권혜인.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 개념과 인성교육.” 『음악교육연구』 제42/3(2013), 41-69.
- \_\_\_\_\_. “음악교과에서의 인성 요소 고찰.” 『음악교육연구』 제43권/1(2014), 21-40.
- 김성원. “교양교육과 인성교육의 연계방안.”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 331-348.
- 민경훈. “후마니타스 음악교육의 함의적 가치와 실천에 관한 논의.” 『문화예술교육연구』 제6 /3(2011), 145-165.
- 박숙희·유경훈.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 그리고 창의적 사고의 관계.” 『창의력교육연구』 제11 권/2(2011), 127-140.
- 박은민.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7(2012), 497-509.
- 박진홍. “음악비평 활동의 창의·인성 교육적 접근.”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제13권(2011), 95-114.
- 손승남. “대학 인성교육의 교수학적 고찰.” 『교양교육연구』 제8권/2(2014), 11-41.
- 손승남·임배. “대학 인성교육으로서 ‘삶의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가능성 탐색.” 『교양교육연구』 제9권/2(2015), 117-144.
- 신정원. “예술대학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개발.” 『한국예술연구』 제1권/6(2012), 223-249.
- 양정실 외.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3-6, 2013.
- 오상규·김원중(2007). “음악활동을 활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사회성, 교육 관계 및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8권/2(2007), 513-532.
- 이강주 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3-35, 2013.
- 이수정. “기초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의 방향: 음악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6권 /2(2012), 151-171.
- 이주희·최명선·박희현. “대학생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人間發達研究』 제16권 /2(2009), 205-220.
- 장근주. “음악교육에서 인성교육의 현황과 과제.” 『문화예술교육연구』 제10권/2(2015), 47-66.
- 정진원·오지향·정은경. “음악교과에서의 역량, 인성교육 요인에 관한 교사인식 FGI 연구.” 『예술 교육연구』 제11권/3(2013), 83-106.
- 정은경·정진원.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역량 및 인성교육에 관한 고찰.” 『국악교육연구』 제7 권/2(2013), 107-127.
- 조성기·민경훈·Choe, E. J. “음악교과에서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음악교육공학』 제21권 (2014), 209-231.
- 천세영 외.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2012-14, 2012.

최경희 외. “예술인성교육의 비전 및 실천과제 개발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구보고서 KACES-1270-R001, 2012.

홍순희. “융합형교양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인성교육의 방안과 ‘새로운’ 인간상 모색: <힐링을 위한 음악과 문학의 만남>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8권/1(2014), 451-483.

현주 외. “학교 인성교육 실태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9-09, 2009.

#### <인터넷 자료>

<http://character.org/more-resources/11-principles/>.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cbs.yu.ac.kr/index.jsp>.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cm.sejong.ac.kr/user/liberal/>.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college.gist.ac.kr/?mid=gist3\\_1](http://college.gist.ac.kr/?mid=gist3_1).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culedu.pusan.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fge.gnu.ac.kr/main/>.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fle.jbnu.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fle.jnu.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fle.kangwon.ac.kr/index.php>.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fle.knu.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fole.chungbuk.ac.kr/index.do>.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s://generaledu.inha.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gs.hanyang.ac.kr/index.html>.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hakbu.skku.edu/>.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hc.khu.ac.kr/v2/>.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home.ewha.ac.kr/~cge/>.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hss.postech.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ile.cnu.ac.kr/flow/#loaded>.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jile.jejunu.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konige.kr/sub05\\_01.php](http://konige.kr/sub05_01.php).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지방거점국립대학교>.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kr.ulsan.ac.kr/contents/about/organization/staff/Default.aspx?search=belong&belong=11675>.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kuweb.korea.ac.kr/ge/>.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liberalartsedu.sogang.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liberaledu.snu.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liberal.uos.ac.kr/liberal/main.do>.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15/201501150149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15/2015011501499.html).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sgedu.konkuk.ac.kr/>.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uc.ajou.ac.kr/uc/index.jsp>.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www.casel.org/social-and-emotional-learning/core-competencies>.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3339046609530296&DCD=A00702&OutLnkChk=Y>.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7&encodeYn=Y&boardSeq=58287&mode=view>.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7&encodeYn=Y&boardSeq=58317&mode=view>.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www.moe.go.kr/web/110410/ko/board/view.do?bbsId=352&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

N&boardSeq=60827&mode=view.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viewYn=CL&query=대학교양+인성교육&q u e r y T e x t = & s t r Q u e r y = 대 학 교 양 + 인 성 교 육&iStartCount=0&iGroupView=5&icate=re\\_a\\_kor&colName=re\\_a\\_kor&exQuery=&pageScale=20&strSort=RANK&order=%2FDESC&onHanja=false&keywordOption=0&searchGubun=&p\\_year1=&p\\_year2=&dorg\\_storage=&mat\\_type=&mat\\_subtype=&fulltext\\_kind=&t\\_gubun=&learning\\_type=&language\\_code=&ccl\\_code=&language=&inside\\_outside=&fric\\_yn=&image\\_yn=&regnm=&gubun=&kdc=&resultSearch=false&listFlag=&keywordRecom=&keywordRecom](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viewYn=CL&query=대학교양+인성교육&q u e r y T e x t = & s t r Q u e r y = 대 학 교 양 + 인 성 교 육&iStartCount=0&iGroupView=5&icate=re_a_kor&colName=re_a_kor&exQuery=&pageScale=20&strSort=RANK&order=%2FDESC&onHanja=false&keywordOption=0&searchGubun=&p_year1=&p_year2=&dorg_storage=&mat_type=&mat_subtype=&fulltext_kind=&t_gubun=&learning_type=&language_code=&ccl_code=&language=&inside_outside=&fric_yn=&image_yn=&regnm=&gubun=&kdc=&resultSearch=false&listFlag=&keywordRecom=&keywordRecom=).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viewYn=CL&query=음악+인성교육&q u e r y T e x t = & s t r Q u e r y = 음 악 + 인 성 교 육&iStartCount=0&iGroupView=5&icate=all&colName=re\\_a\\_kor&exQuery=&pageScale=20&strSort=RANK&order=%2FDESC&onHanja=false&keywordOption=0&searchGubun=&p\\_year1=&p\\_year2=&dorg\\_storage=&mat\\_type=&mat\\_subtype=&fulltext\\_kind=&t\\_gubun=&learning\\_type=&language\\_code=&ccl\\_code=&language=&inside\\_outside=&fric\\_yn=&image\\_yn=&regnm=&gubun=&kdc=&resultSearch=false&listFlag=&ids=&titles=&taxonIds=&description\\_kos=&kind=&keywordRecom=&keywordRecom](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viewYn=CL&query=음악+인성교육&q u e r y T e x t = & s t r Q u e r y = 음 악 + 인 성 교 육&iStartCount=0&iGroupView=5&icate=all&colName=re_a_kor&exQuery=&pageScale=20&strSort=RANK&order=%2FDESC&onHanja=false&keywordOption=0&searchGubun=&p_year1=&p_year2=&dorg_storage=&mat_type=&mat_subtype=&fulltext_kind=&t_gubun=&learning_type=&language_code=&ccl_code=&language=&inside_outside=&fric_yn=&image_yn=&regnm=&gubun=&kdc=&resultSearch=false&listFlag=&ids=&titles=&taxonIds=&description_kos=&kind=&keywordRecom=&keywordRecom=). 2015년 10월 10일 접속.

<http://www4.yonsei.ac.kr/fresh/>. 2015년 10월 10일 접속.

## ABSTRACT

### A Study on the Directionality of Music Courses as Undergraduate General Education for Character Education

Won Sun Choi

This study addresses character education through music courses as undergraduate general education in college. The needs for character education of the times led to the enactment of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of 2015, which indicates that the field of education has been forced to instantly embrace and reflect the national and social needs for character education. Taking that viewpoint, the present study sought after a topic of "what meanings character education had through music as a course of general education and what directionality could be proposed" in character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The study first examined a "need for musical character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in the aspects of goals and educational policies that the government set for character education to figure out the significance of character education through music courses as undergraduate general education at the national and social level. Secondly, on the premise that character education should primarily be provided through general education in college, the study looked into the research trends of character education in previous studies on correlations between college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and between music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thus shedding light on academic needs for research on musical character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Thirdly, it set the goals of musical character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elements of character education including personal, relational, and social character. The current states of music-related general education courses were analyzed in total 28 universities, which include ten local base universities of South Korea and 24 South Korean universities that were in top 800 of "2015-2016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Times Higher Education* (THE), a British university evaluation institution, to examine the possibilities and problems of music courses as undergraduate general education as courses of character education in an attempt to actualize character education. Finally, the findings were used to propose directionality for music courses as undergraduate general education for musical character education.



## 대학 인성교육을 위한 ‘교양음악’의 방향

이 연구는 대학의 ‘교양음악’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것이다. 인성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2015 ‘인성교육진흥법’ 제정(制定)에 이르렀고, 이는 교육의 현장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해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본 연구의 화두(話頭)는 ‘교양 교과목으로서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떠한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인성교육에 대한 정부의 목표와 교육정책의 측면에서 ‘대학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함으로써,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교양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의 의의를 돌아본다. 둘째,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이 일차적으로 교양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대학교육과 인성교육의 상관성 및 음악교육과 인성교육의 상관성들을 다룬 국내 학술연구들의 선행연구를 통해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 경향을 파악한다. 이로써 ‘대학 인성교육 연구’에 대한 학문적 요구를 조명한다. 셋째, 인성교육의 ‘개인적-상호적-사회적 측면’에 입각한 ‘교양음악’을 통한 대학 인성교육의 교육 목표를 세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지방거점대학 10곳과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선정한 ‘2015-2016 세계대학평가’ 상위 800위권 내에 속한 우리나라 대학 24개교를 포함해 총 28개 대학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음악 관련 교양 교과목들의 현황 분석을 통해 인성교육을 현실화하기 위한 교과로서 ‘교양음악’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타진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대학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교양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시한다.